

판화 소품과 함께 하는 손맛 산책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판화가 유대수의 열네 번째 개인전 ‘화담-판화산책’이 20일부터 27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PlanC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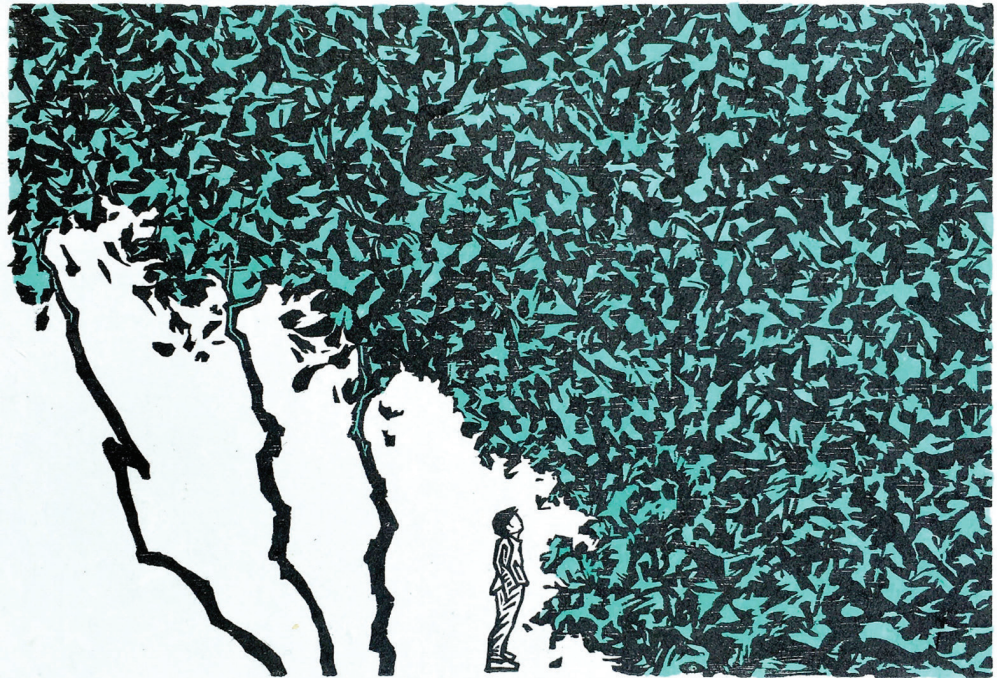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기존에 작업한 작품과 신작 판화 소품을 합쳐 1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화담’은 2017년부터 매주 SNS에 가로세로 10cm의 소품 판화를 소개한 ‘주간 화담’ 시리즈에서 비롯됐다. 주간화담은 그때그때 떠오른 작가 개인의 상념과 함께 사회적인 사건들, 일상의 경험을 담은 작품들로, 그림에 덧붙인 짧은 글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

전시는 그동안 하나둘 쌓인 60여점이 전시된다. 또, 숲을 주제로 작업한 신작 20여점, 부채 선면에 작업한 판화부채 10여점, 연극 포스터용 작화 및 서체 판각작품 10여점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목판화는 작업의 특성상 나무를 조각칼로 새기고 종이에 찍는 과정을 반복한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작품 에디션을 채우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이 비록 ‘소품’이라 해도 작업에 쏟은 시간과 공력은 만만치 않다. 크기와 상관없이 작품의 내면을 찬찬히 살피고 진득하게 음미해 볼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판화가 유대수 열네 번째 개인전 ‘화담-판화산책’



작가는 "이번 전시를 지난 3월 봄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뜨거운 여름에 선보이게 됐다며, 바이러스와 홍수로 지친 요즈음 잠시나마 편안한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림 속에서 휴식과 위로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작가는 전주에서 출생, 홍익대학교 판화와

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14회의 개인전과 80여회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전주 서신갤러리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기획자로 활동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에 ‘판화카페대수공방’을 열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의 간척-간척 지역사 자료, 모두 모여라

전주대-새만금개발청, 한국 간척-간척지역사 자료 수집 나서

전주대와 새만금개발청이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 수집에 나섰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소장 및 전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에 걸쳐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 수집 공모전’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은 한반도의 간척역사가 문헌에 등장하는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물, 기념물, 간척생활 유물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간척사업 관련 자료, 간척지에서 삶을 개척해 온 주민들의 생활사 자료,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기록·증거·기념물 등으로 간척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유물, 사진,

지도·도면, 도서, 영상, 시공장비 및 비품, 생활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가 해당하며 해외 간척자료도 포함된다.

18일 기준으로 100여 점이 수집공모전에 응모되어 있으며, 마감일인 10월 10일 18시까지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기록물은 새만금개발청이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입상자(61명)를 공개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1개월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홍보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참여자의 뜻을 기념하고 소장품 확보의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행 책임 전주대 홍성덕 교수는 “우리나라 간척역사의 전시·교육을 위해서 국



리집(www.jj.ac.kr/sanhak/)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hangoyeon@hanmail.net)으로 접수하거나 자료수집공모추진팀(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한지산업관)으로 해당 자료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종근 기자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간척의 기록과 유물들이 생생하게 보존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여는 전주대 산학협력단 누

세계 영화인 마음 움직인 작은거인 ‘미스터 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이야기’ 손님에 김동호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은 26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 손님으로 김동호(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사진)가 출연한다. 김이사장은 문화공보부를 거쳐 영화진흥공사 사장, 문화부 차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견고한 밑돌을 놓은 영화인이다. 이번 공연에서 김이사장은 강릉국제영화제 출범 배경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비결,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본 한국 영화계의 위상,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유명 영화인들과의 인상 깊었던 만남과 추억 등을 소재로 주옥같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기에 ‘MBN 보이스퀸’에 출연해 국악과 가요를 결합한 독창적인 창법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가슴을 울리는 무대로 깊은 여운을 남긴 차세대 명품 소리꾼 조엘라가 출연해 ‘살다보면’, ‘인연’, ‘난 감하네’, 심청가 중 ‘만좌맹인 눈뜨는 대목’ 등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0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4)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능하다. /이종근 기자

전주미술관, 곰비임비마켓

전주미술관은 28일에 액세소리 장터인 ‘곰비임비마켓’을 갖는다. ‘곰비임비마켓’ 프로그램 대상은 육아와 가사에 지친 주부이며, 전주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두 번의 클래스를 진행한 결과물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전주미술관에서 준비한 클래스는 레진 손거울과 마크라메 만들기이며, 각각 2회씩 진행한다. 레진 손거울 클래스는 18일,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마크라메 클래스는 24일, 25일 오후 2시부터 진

행한다. 마켓은 28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클래스 및 마켓 참여는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곰비임비마켓’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마켓 당일에는 구시가지 주변을 기록한 ‘너나들이 지도’를 배포할 예정이다.

손진희 학예사는 “이번에 진행되는 ‘곰비임비마켓’을 통해 공예에 대한 재미, 흥미를 느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전주지검 임채원 부장검사 첫 칭찬지도자상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7시 전주 전라감영75(한옥마을 카페)에서 칭찬운동전도사 김종선 나무터개혁신철세계연합회장이 주는 첫 번째 칭찬지도자상을 받았다.

김종선 나실련 회장은 “임채원 부장검사는 31년간 검사로 재직해온 동안 사기예방교육을 29회 실시하여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엔 혼신을 다했다”면서 “스스로 만든 사기범죄 예방 5개 수칙과 사기당한 후 3개의 행위 수칙을 강의하다 보니 사예검(사기예방검사)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직무수행에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우수검사로 인정, 국민들의 법률의식을 확산시켜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부하는 검사, 영혼이 맑은 검사로 통하며 사기 예방 교육이 호응을 얻어 KBS, MBC, SBS 방송 출연과 함께 여러 신문에 보도되어 범죄예방 스타강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어 법조계의 칭찬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칭찬지도자상 수상 후 두 번째 칭찬 릴레이 주자로 박용근 경향신문 기사를 지정했다.

김희장은 “박용근 경향신문 기자는 사회적 약



자를 보살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좋은 기사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참 언론인으로 칭송받고 있다”며 “특히 박 기자는 맨손으로 강도를 때려 잡아 경찰 표창장을 수상한 정의감에 불타는 의로운 언론인으로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고, 취재원의 어려움도 도와주는 진정한 봉사정신이 있어 영원한 귀감이 된다”고 했다. 이어 “2003년 부안 방폐장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해 녹색언론인상을 받기도 했으며, 그는 시대와 역사의 요류를 바로 잡아 공익을 이끌어가는 전문직필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므로 칭찬지도자 상을 준다”고 했다. 김종선 나실련 회장은 ‘MBC 칭찬합시다’ 제안자로 30년 넘게 칭찬 운동을 벌여왔고, 미국에서 칭찬문화 창조 운동을 전개한 공로가 인정되어 미국 연방 국회와 미국 펠리세이드 파크 도시의 시장 감사 표창을 두 개나 받은 칭찬문화를 선도해가는 칭찬전도사로 정평이 나왔다. /이종근 기자

함께 지켜주세요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범법행위입니다.

